

傳統的 住居에서의 空間使用과 構成에 대한

韓・日간의 比較(1)*

-江戶時代 武家 住宅의 空間的 特質-

朴善姬

(全北大學校 家政管理學科 教授)

1. 서언

동양의 삼국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목구조의 주택을 지녀왔다는 공통적인 점에서 중국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주거문화에 깃든 공간구조의 속성에 대하여는 양국이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일본주택의 특징은 첫째, 木造로 되었고 둘째, 여름철의 대비를 목적으로 지어졌으며 셋째, 차양의 발달을 들 수 있고 넷째, 방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¹⁾ 이러한 주거외관 만으로는 단지 기후적 조건이 일본주택의 특질 모두를 형성해 온 것이 아닌가 보여질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주거공간의 구성과 배치가 기후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일본의 경우도 매우 복잡한 봉건시대의 정치 사회적 성격이 주거공간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일본의 주거는 원래 皇室을 중심으로 한 公家와 武人들의 武家가 상류주거의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공가는 寢殿造의 주거를, 무가는 침전조의 형식을 개량시켜서 主殿造의 형식을 만들었고 이것은 다시 書院造의 주거형식으로 이행되었다.²⁾

무가 주택이 지닌 공간 구성과 그 구조적 특성은 무사사회의 종적인 측면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주거의 공간구성 방식은 농가나 상가와 같은 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와 아울러 주생활 방식도 무가의 내용을 모방하게 되었다.

따라서 에도시대에 있어서 형성된 무사들의 주거는 일본의 전통적 주택의 표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무가주택이 지닌 일반적인 특성과 아울러 공간구성이나 사용에서 나타난 구조적 특질이 어떠한 것이었나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학술재단의 해외연수 연구 보조에 의하여 기록되었음.

1) 後藤守一, [住居の歴史], 東京: 河出書房, 1956, 8-12쪽

2) 朴胤成, [住居論], 文運堂, 1986, 85쪽

1-1.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하되 이미 일본에서 이루어진 무가주택에 대한 연구물들, 즉 2차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무가주택의 평면분석을 위해 공간의 명칭이나 그 기능이 명확히 밝혀져 있는 내용만을 표집 선택하였는데, 그 결과 매우 한정적인 수에 그쳤다는 것을 밝힌다. 시대적 범위는 에도시대의 무가로 한정하고자 하며 무가 중에서도 쇼오군은 제외하였다.

1-2. 용어의 정의

본고에서 나오는 무사의 신분이나 지명, 고유 명사 및 의미상의 차이때문에 한글로 번역하기 곤란한 것은 가급적 그대로 표기하였다.

*城下町-城의 주변 동네에 형성된 무사들의 거주지 구역과 함께 길을 따라 형성된 상가구역을 모두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성둘레구역'으로 하였다.

2. 무가의 신분적 계층

일본의 전통문화는 긴 武家³⁾시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 무가의 역사는 800년에 이른다. 무가란 그 근원을 더듬어보면 지주와 소작인으로 구성된 自警團이며 여기에서 다소 분화된 장원의 경비보장같은 것인데 이것이 연합해서 각각의 地盤을 기반으로 한 무력에 의해 중앙의 정쟁에 개입하면서 마침내 전국적인 권력을 만들어 내어 법을 공포한 것이 야수도키(1183-1142) 때이다. 이를 계급이라고 본다면 이후의 일본은 실로

3) 근세의 武士가 의식하는 [家]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신하로 종속되어 있는 쇼오군가나 다이묘가이며 둘째는 親子夫婦를 중심으로 先祖 대대로 전해온 공동생활체의 家이다. ([歷史公論 1-日本人と家-], 雄山閣, 1980, 107쪽)

메이지때까지 이 계급이 실질적인 지도자 계급, 지배자 계급이었다. 따라서 일본인의 모든 생활방식에 이 {무가법.무가도}적인 것이 침투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무가시대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그 가려진 형태의 문화가 형성된 시기는 에도라고 할 수 있다.⁴⁾

즉, 1590년 8월 1일 이에야스(家康)는 경영의 근거지를 에도(江戸)로 옮기고 13년 후인 1603년 대망의 쇼오군(將軍) 선지를 받고 에도에 바쿠후(幕府)를 열었다. 즉 일본의 에도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에도바쿠후의 성립은 도쿠가와(德川)가 전국통일자로서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것이었다.⁵⁾

에도시대의 무사는 위로 다이묘(大名)에서 밑으로 武家奉公人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격식과 복잡한 役職의 조직으로 통제되었다. 격이란 자격의 격으로 신분상의 영예 또는 특권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말인데 役職이란 公職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격은 봉건사회의 특색인 세습제때문에 家에 딸려지는 것이 관행으로 되었다.⁶⁾

한편 쇼오군에 直屬·從臣된 무사는 그의 門地·家祿에 의해서 다이묘(大名)·旗本 및 御家人으로 구분되었다. 그 가운데 삼백 諸侯로 불려진 다이묘는 家祿 一萬石⁸⁾ 이상이고(일만석 미만인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百石 이상을 旗本으로 하고 백석이하를 御家人으로 칭하였다. 이 御家人은 旗本 오천이백여가에 대해서 일만칠천삼백여가로 일컬어져 실제 도쿠가와 家臣團의 七割을 점하고 있었지만 門地나 家格이 낮고 쇼오군에 배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御目見이하라는 신분이었기

4) 한준석, [文的문화와 武의문화], 다나, 1991, 63-66쪽

5) 현재의 東京

6) 北島正元, [江戸時代], 東京: 岩波書店, 1971, 1-12쪽

7)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1, 職制·儀禮], 東京: 柏書房株式會社, 1982, 2쪽

8) 에도시대에는 다이묘를 비롯한 무사들의 俸祿을 石高에 의해서 표현하였다. 이 석고는 豊臣秀吉이 천하를 통일해서 전국의 稅制를 一本으로 하기 위해 경작지와 수확량 및 쌀의 질을 측량하여 정한 것인데 이 제도는 메이지유신까지 이어졌다. (進士 慶幹, [江戸時代 武士の生活], 雄山閣出版株式會社, 1972, 193쪽)

때문에 부모자식 대대로 낮은 월급과 차가운 대우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下級武士들이었다.9)

다이묘도 백이만이천칠백석의 大名에서 일만석에 이르기까지 이백육칠십의 家가 있었는데 이것은 先祖의 武功에 의해 허용된 관례나 바쿠후의 관료로써 役職상의 전환, 이전의 家門, 錄高의 정도에 따라 格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에도성(江戶城)안의 좌석배치에서 나타나는 것이나 조정에서 받은 敍任의 계급에 의해서도 上下가 있어 다이묘의 格만 해도 아주 복잡하였다.10)

3. 武家住宅과 법적 제한

1) 주거위치의 제한

다이묘는 각기의 藩에서는 영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바쿠후의 城들레구역에 가옥을 마련하였다.參勤制¹¹⁾에 의하여 자기의 領國과 에도의 가옥에서 각기 살게되었기때문에 藩主와 수반하여 에도에 온 무사나 그들의 생활을 뒷받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처자식을 위한 가족의 저택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에도시대에는 서민이 사는 마치야(町屋)와 무사가 사는 武家地와는 확실히 구분되어(그림 1) 무사로서의 신분의 상하나 자격(지위)의 大小에 상관없이 마치야에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어가인의 저택은 상당수가 그룹별 우두머리의 통솔에 의한 일개소에 모여져 지어졌는데 이것을 組屋敷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을 御町奉行屋敷, 御走組屋敷라고 하여 해당 직명을 사용했지만 어느사이에 御走町, 百人町, 駕籠町, 鐵砲町, 弓町등 편의적인 길(町)의 이름이 붙여지고 그 일부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12)

이러한 주거지의 결정은 에도만이 아니었다.근세의 다이묘도 兵農分離를 위해 家臣의 城 아래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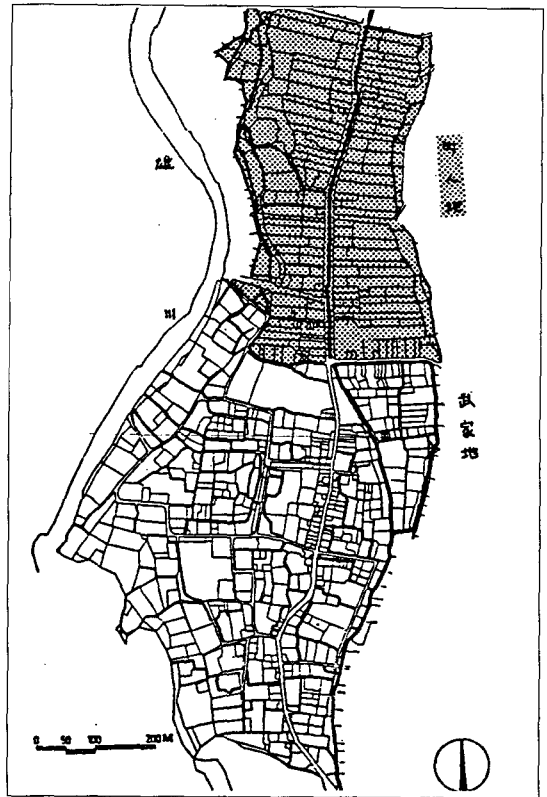


그림 1. 小幡의 城들레 구역

〈출처 : 平井 聖, 「住生活史 - 日本人の住まいと生活-」, 日本放送出版協會, 1989, 105쪽〉

네에 정주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면밀한 동네의 구획을 실시하였다. 성들레구역의 번영은 다이묘의 경제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므로 방위나 防災를 포함하여 근세 성들레구역의 기본구획에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었다. 이 구획의 기본은 天守閣¹³⁾을 중심으로 하여 중심(本丸)에 다이묘의 저택을

10)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 앞책, 2쪽

11) 참근교대라고 하며 다이묘가 막부의 장군을 알현하고 일정기간 막부에서 근무하는 일로 다이묘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으로 제3대장군 家光때에 성립하였음. 즉, 다이묘들로 하여금 처자들이 거처할 저택을 에도에 짓고 처자는 에도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고 다이묘는 1년 간격으로 에도와 자신의 영지에서 집무하는 제도.(김희영, [이야기일본사]청아출판사, 1987)

12) 武士生活研究會, 앞책, 40쪽

13) 가장 높은 탑

9)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 東京: 柏書房株式會社, 1982, 40쪽

배치하고 다음(二の丸,三の丸)에 重臣가옥을 배치, 그 외측에 신분이 높은 순서부터 일반무사인 아시카루(足輕)를 할당하고 마을은 그 외측에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절대적인 기본 계획이었다.¹⁴⁾

따라서 다이묘들은 藩내의 경제기반이 되는 농민이 농지를 떠나서 성주변의 동네에 모이는 것을 극력 피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 물자를 판매하는 상인이나 무예도구 및 일용잡화를 생산하는 職人들을 조세감면하는 특전을 주어 함께 모이도록 하므로써 이러한 상인이나 기술자의 주택이 성둘레구역에 배치되었다.¹⁵⁾

2) 주거규모의 제한

주택부지는 다이묘가 에도저택의 부지를 장군에게서 하사받은 것과 같이 諸藩의 무사도 택지는 藩主에게서 부여받았다. 주택지의 크기는 물론 祿高의 高低에 의한다.¹⁶⁾ 또한 부여받은 택지에 지어진 주택은 다시 祿고에 의하여 여러가지 제한이 있었다.¹⁷⁾(그림 2) 石高 百石, 千石, 万石 단위로 구분한 이러한 택지의 크기 제한은 신분별로만 제한했던 한국의 조선시대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세분화된 엄격함을 보여 준다.

신분이 높을수록 城가까이 살았는데 家老와 같은 경우는 성아래에 정치를 행할 수 있기 위한 上屋敷이 있고 조금 떨어져서 주거를 위한 中屋敷/下屋敷 등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저택주변에는 하급무사가 사는 長屋이 배치되어 바깥쪽의 시설에는 表門, 門番所, 玄關, 表書院, 表座敷가 있었고 안쪽으로는 藩主나 처가 거주하는 諸座敷나 부엌, 使用人들을 위한 下部屋등이 있었다.¹⁸⁾ 家老이하의 藩士들의 주거는 藩에서 지정한 대지에 집을 짓고 승진해서 신분이 바뀌면 대지 변경도 행해졌다. 대지의 크기는 신분에 의해서 정해졌으며 주거도 그 규모나 현관의 구성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평면도를 제시해 준 경우도 있었다.¹⁹⁾

14)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 2-生活,文化-], 柏書房株式會社, 1982, 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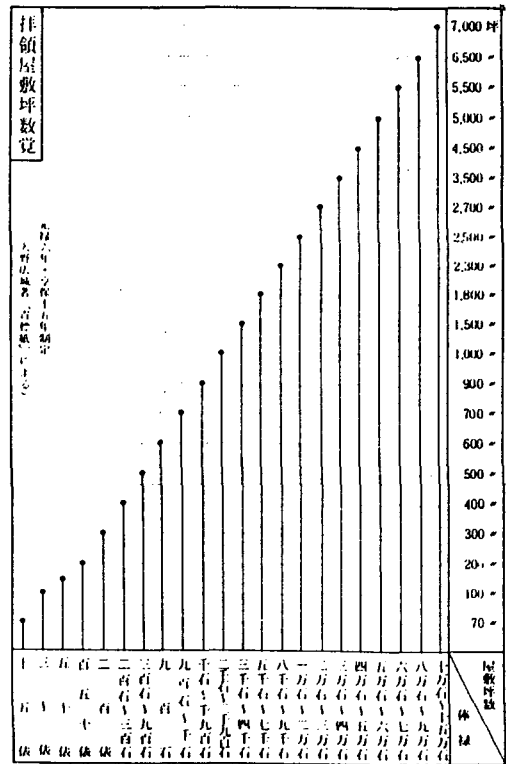


그림 2. 武家の 石高과 주택평수

〈출처 :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 II 〈生活・文化〉」, 柏書房, 1982, 43쪽〉

경우에 따라서는 客室(座敷)의 넓이와 客室 내의 다다미의 수까지도 일정한 한도를 정하기도 하였다.²⁰⁾

組屋敷의 구조는 중앙에 도로를 두고 그 양쪽에 이, 삼십호의 저택을 정연히 배열하여 지어졌다. 한 집의 넓이는 신분과 格式에 의해 다소의

- 15) 平井 聖의, [建築史], 市市谷出版社, 1976, 74쪽
- 16) 長州萩藩의 경우 삼천석 이하는 구백평, 천오백석 이하는 육백평, 사백오십석 이하는 사백평, 백오십석 이하는 삼백평, 오십석 이하는 이백평, 陳僧과 弓鐵砲足輕은 칠십평 정도 이었다.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2], 40-41쪽)
- 17) 武士生活研究會, 앞책, 40-41쪽
- 18) 稻葉和也의, [日本人の住まい-住居と生活の歴史], 彰國社, 1983, 70쪽
- 19) 平井 聖, NHKデ-タ情報部編, [江戸事情第5券建築編], 雄山閣出版, 1993, 50-62쪽
- 20) 平井 聖, [建築史], 앞책, 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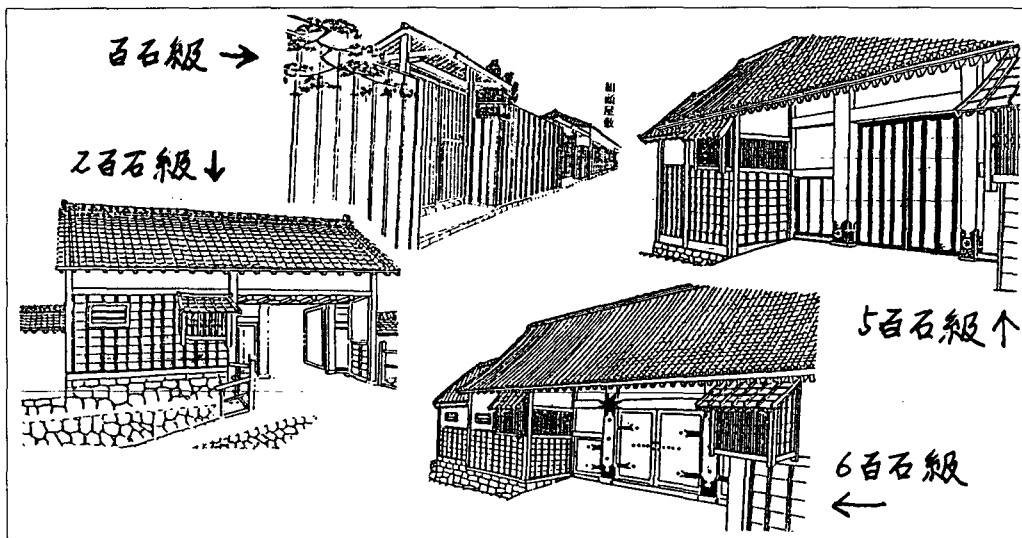


그림 3. 武家住宅의 門의 설비

〈출처 :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II」, 앞책, 44쪽〉

차이는 있지만 칠십坪에서 3백평으로 크기는 백 오십평 전후였다. 공간 구성은 玄關, 다다미 4조, 6조, 8조와 차노마(茶の間), 부엌으로 건평은 고작 2,30평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空地가 상당히 남아 여기에 자급자족용의 야채를 재배하거나 여가를 이용한 가내업들이 이루어졌다.²¹⁾

있는 것이 많았다.²³⁾

또한 障壁畫를 그리거나 중인방(長押)을 넣는 것 등은 원칙적으로 상인들에게는 금지된 무가의 특권이였다.²⁴⁾

3) 주거설비의 제한

바쿠후는 처음부터 질소 검약주의를 취했는데 1699년에는 梁의 두께나 주거내의 장식에 관해서도 일일이 지정하였다. 한편 에도시대의 무가주택은 門이 그 집의 표상이었던 바 門의 구조와 크기(大小)는 신분과 격식에 의한 엄중한 제한이 제정되어졌다. 兩扉는 적어도 백석이상의 士에게만 한하였고 백석이하는 片扉에다가 冠木門이었으며 30俵의 同心등은 단순히 두개의 나무 원기등을 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²²⁾(그림 3)

한편 무사주거에는 현관을 설치하여 이곳을 정식 출입구로 사용하였는데 이 현관은 객실(座敷)과 함께 무사주택의 상징이 되어 소규모의 아시카루층의 주거에도 式台형식의 현관만은 꼭 붙어

4. 무가주택의 평면적 특성

무가주택의 실내구성은 기본적으로 마루와 다다미(疊)로 구성되었다. 본래의 마루구조에서 다다미가 등장하게 된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源氏物語繪卷](1125년전후)에서 寢殿造의 저택 실내에 다다미가 일부 사용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즉 초기의 다다미는 貴人の 자리 깔개이자 침상이 되었는데 헤이안(平安)시대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앉는 다다미도 넓고 두꺼웠으며 테두리의 색이나 문양에 의해 앉는 사람의 지위나 신

22) 무사생활연구회, 앞책, 40-41쪽

23) 大島建彦의, [日本を知る事典], 東京: 社會思想史, 1992, 200-201쪽

24) 平井 聖, [住生活史-日本人の住まいと生活-], 東京: 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89, 106쪽

21) 무사생활연구회, 앞책, 40-41쪽

분을 규제하였던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 이후 다미가 실내의 바닥재료로 보편화 된것은 에도시대에 들어 온 후로 보고 있다.²⁵⁾

무가주택의 평면은 間의 분할과 연결이 그 특색인데 계층이 높아질수록 평면의 구성은 매우 복잡하여 쇼오군이나 石高가 어느 정도 이상인 다이묘의 집은 미로찾기와 같다.²⁶⁾ 즉, 城이나 領主들의 주택은 政務를 보는 공간이 함께 이루어져서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컸다고 보겠다.

이러한 무가의 실내공간 구획은 전부 미닫이 쇼오지(障子)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된 특성의 하나라고 하겠다.

1)다이묘 및 상급무사의 주택

다이묘는 제각기의 藩에서는 영주이지만 한편으로는 바쿠후가 있는 에도의 성둘레구역에 주거를 마련하였다. 참근의 制에 의해 嶺國과 에도에서의 생활을 번갈아가면서 하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에도에 처자를 살게 하였다. 따라서 藩主를 수반해서 에도에 온 무사와 가족들의 생활을 지원할 주택을 지었다.²⁷⁾ 주택은 2개소나 5개소에 세워져 上屋敷, 中屋敷, 下屋敷 등으로 불리웠는데 上屋敷는 다이묘 본인의 거주장소로써 에도성의 登城의 편의를 고려해서 성가까이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심이 되는 殿舎는 表·中奥·奥의 세부분으로 구별되어 奥(오쿠)에는 正室부인과 자녀들이 살았다. 中屋敷는 上屋敷의 예비적 성격을 지닌 곳으로 주로 다이묘의 適者(世嗣)의 주거였는데 다이묘의 자식도 모반을 막으려는 바쿠후의 인질로써 家督상속에 이르기까지 에도를 떠날 수가 없게 되었다. 中屋敷는 上屋敷만큼 성가까이는 아니지만 바쿠후의 직접적인 감시가 빠듯이 당을 만큼의 곳에 배치되었다. 下屋敷는 河岸地에 놓여서 각 다이묘의 전용 荷役차場으로 되고 긴급한 경우에는 피난소의 기능을 지녔기 때문에 上屋敷, 中屋敷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데 藩에 따라서는 藩主의 隱居所이기도 하였다.²⁸⁾

25) 佐藤 理, [壘のはなし], 鹿島出版會, 1994, 14-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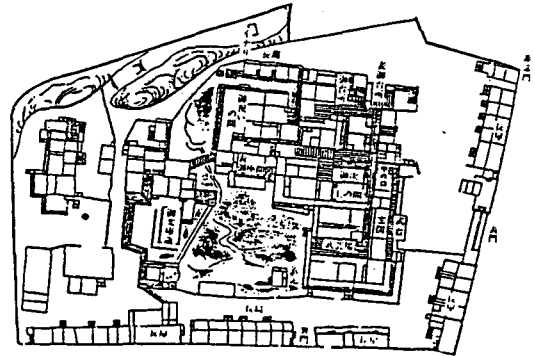


그림 4. 上流武士住宅의예(江戸幕府役職集成)
〈출처 :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II」(生活・文化)〉

다이묘 주택은 1657년에 일어난 大火災를 계기로 크게 변하였다. 이전의 것은 소위 모모야마(桃山)風の 구조로 장식적 金具나 조각을 곁들이고 金箔을 입힌 樓門(櫓門)을 설치하는 등 호화찬란한 것이었다. 이것이 화재 이후에는 화려한 장식이 감추어지고 매우 간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大書院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그 당시의 다이묘 주택이 대부분 소실된 것을 계기로 바쿠후가 신분에 걸맞지 않은 주택을 단속하고 다이묘도 자체적 재정이 어려웠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²⁹⁾

한편 에도시대에는 무가사회가 확립되어 그 격식과 위엄을 나타내는 접객법과 일상의 생활이 관례적으로 되면서 서원조가 정형화 되어 상급무사의 주거특성(그림 4)으로 정착³⁰⁾되게 되었는데 書院造란 大·小兩書院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주택양식을 의미한다. 서원조의 주택은 통상 동쪽이나 서쪽에 表門을 두고 그 안쪽에 廣場이 설치되어 표문에 대응하는 玄關을 구성하고 그 주변에 내현관과 시중인들을 대기하는 고시가케(腰掛) 등을 배치한다. 표문과 현관은 主人과 客이 이용하며

26) 太田博太郎, [日本住宅史研究], 岩波書店, 1984, 437쪽

27) 平井 聖, [住生活史-日本人の住まいと生活], 放送大學教育振興會, 90쪽

28) 武士生活研究會, [武士の生活2], 앞책, 34-35쪽

29) 武士生活研究會, [武士・生活2], 앞책, 34쪽

30) 稻葉和也의, [日本人の住まい], 71쪽

특히 객을 맞이할 때 객의 신분에 의해 맞이하러 가는 家臣의 지위나 환영장소를 바꾸어 손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 봉건시대의 작법이었다. 현관의 안쪽에 있는 대소양서원은 대면과 響應의 장소로 大書院에서는 대면의 禮가 행해지고 小書院에서는 饗宴이 행해지는데 대서원은 그 앞의 뜰에서 행해지는 演藝를 감상하는 장소로, 小書院과 이에 이어진 茶室은 차를 마시는 장소로 되었다. 兩書院의 안쪽에는 일상정무를 보기위한 居間書院, 휴식을 취하거나 야간의 수면을 위한 休息所, 寢所가 서원과 같은 형식으로 지어졌다. 이러한 공간들은 남측에 놓이며 복도로 연결되었다. 서원조의 양식은 신분에 의한 규모의 축소와 생략되는 면 등이 보이지만 다이묘 家老에서 아시카루(足輕) 등의 하급무사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의 주택에 이용되었다. 다이묘의 에도저택에서는 에도에서 근무하는 家臣을 살게하기 위한 행랑채(長屋)를 주위에 지어 신분에 따라 정해진 형식상의 문을 만드는 등의 특색이 보인다.³¹⁾

또한 書院造란 主室에 도코(床)/선반(障棚)/서원(付書院)/帳台構를 설치한 건물의 양식을 일컫기도 하는데 반드시 이 네가지를 완비하지 않고 도코(床)만 있는 경우도 書院造라고 부르고 있다.³²⁾ 따라서 서원조의 큰 특징은 바로 이러한 객실의 장식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도코와 선반이 설치된 부분이 중심자리가 되며 이곳을 도코노마(床の間)라고 한다. 이 도코노마는 그 꾸며진 설비의 정도에 따라 眞, 行, 草로 품격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져 온 것을 볼 수 있다.³³⁾ 따라서 도코노마는 서원조 이래 최고의 객실에 만들어져 왔고 도코노마가 위치한 쪽이 상석이 되어 초대된 손님의 신분에 따라 좌석배치가 달라졌다.³⁴⁾

서원조는 주거형식으로써 무가사회에서만 이용되었던 것이지만 점차로 경제력이 있는 豪商이나 在郷의 名主階層의 주거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茶室건축의 영향을 받아서 격식을 꾸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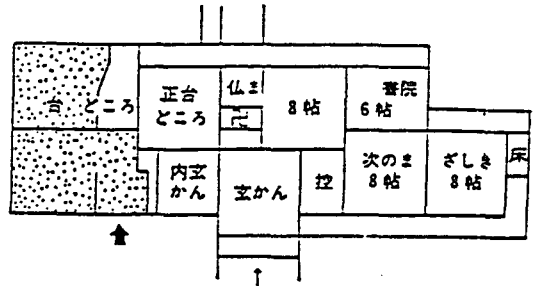


그림 5. 中級武士의 住宅平面圖

〈출처 : 加倉井昭夫, 「日本の室内の空間」, 主婦と生活社, 1975, 34쪽

않는 數寄屋風書院造도 나타나 이것이 武家와 상가(町家), 農家에까지 퍼지게 되었다.³⁵⁾

2) 중하급무사의 주택

에도시대의 도시, 성둘레구역의 중심지 대부분은 무사가 살았다. 상인이나 기술자들도 주민이었지만 무사의 주거가 城을 에워싸야 家老에서부터 아시카루(足輕)에까지 신분에 의해서 배치되었다. 에도시대의 무사는 보통 城에 통근하여 藩의 사무를 맡는 공무원이었다. 이러한 무사의 주택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부지의 주변에 담을 두르고 문을 만들어 그 안에 독립된 가옥으로 지어졌다. 건물의 크기는 작아도 양식은 다이묘의 주택과 같은 서원조로 주인의 거처실이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객실(자시키:座敷)과 가족의 생활의 장인 오쿠노베야, 그리고 현관.부엌(다이도코로) 등이 구성되었다. 城 주변의 중심 동네는 대개 중하급무사의 주거가 많았고 아주 지위가 낮은 아시카루의 주거는 2호에서 수호가 이어진 연속행랑채로 된 것이 많았다. 이러한 중·소규모의 무사주거는 메이지 유신 이래 샐러리맨 주택의 원형이

32) 西 和夫의, [日本建築のかたち-生活と建築造形の歴史], 彰國社, 1984, 62쪽

33) 박선희, “전통적 住居에서의 接客生活에 대한 韓日간의 비교”, [동방학지] 76집,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92, 253-280쪽

34) 上田 篤, [日本人と住まい], 岩波書店, 1982,

35) 稻葉和也의, 앞책, 71쪽

31) 平井 聖, 日本人の住まい, 東京: 市市谷出版社, 1989,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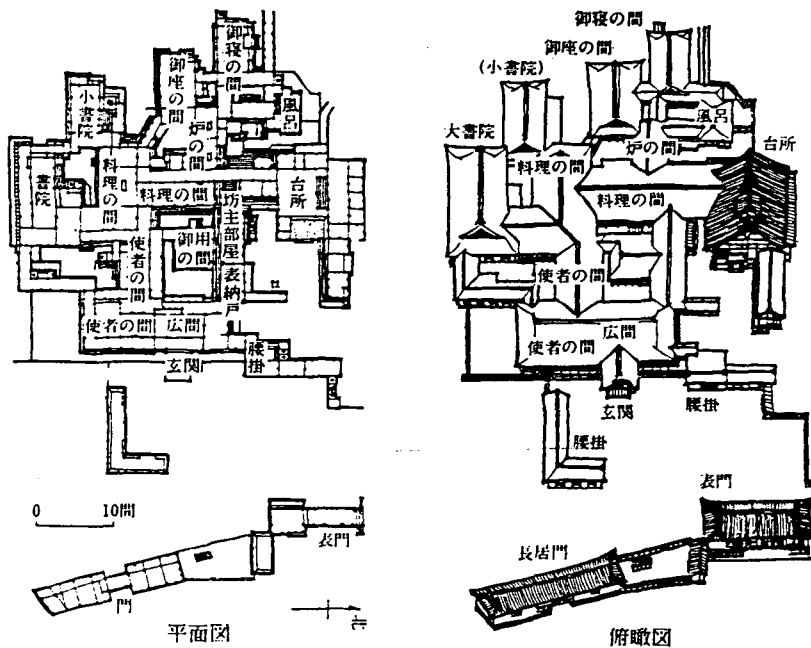


그림 6. 宇和島藩伊達家江戸中屋敷
 (출처 : 平井 聖, 『住生活史』日本放送出版協會, 93쪽)

되었다.³⁶⁾(그림 5)

備中松山藩에서는 城下에 지어진 무사주거에 대하여 평면도로 규모나 현관의 구성을 정해 놓았다.평수는 23평반에서 41평까지의 다섯종류인데 공통점은 어느 집이든 도쿄노마가 붙은 客室이 있고 그 크기는 하나는 10조, 나머지는 8조로 객실의 크기가 일정했다는 점이다.³⁷⁾

바쿠후에 살던 하급무사들은 100-500石 정도의 사람이 많았으며 그들의 주거는 건평이 30-80평 정도의 넓이로 문의 설비 형식이외에도 현관폭의 크기, 중인방이나 다다미의 가선천 등에 제각각의 격식에 맞는 제약이 있었다. 방의 배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領地에 있는 몸채는 일반의 農家와 규모나 형식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 보통이었다.³⁸⁾

따라서 일반적인 평면은 농가의 田字形 평면과 비슷한데 집의 가장 안쪽에 객실(座敷)을 만들고 뒷마루측에 현관과 같은 客의 출입구가 있었다. 당시 주택에 관한 여러가지의 금지된 법령이 있

어 障壁畫를 그리거나 중인방(長押)을 넣는 것 등은 원칙적으로 상인들에게는 금지된 무가의 특권이었다.³⁹⁾

5.주공간 사용으로 본 공간의 구조적 특질

1)접객과 의례위주의 구성(접객 및 의례/일상생활)

에도시대 바쿠후였던 大棟梁平内家の 傳書인 [匠明]에 나타난 서원조의 배치도를 보면 건물이 접객용, 주인의 거주용, 가족의 거주용, 使用人의

36) 平井 聖, 앞책, 69쪽

37) 平井 聖, NHKデータ情報部編, 앞책, 62쪽

38) 稻葉和也, 中山繁信, [日本人の住まい], 앞책, 74쪽

39) 平井 聖, [住生活史-日本人の住まいと生活-], 東京: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89, 106쪽

방, 부엌으로 대별된다.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가족들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접객용 건물에 매우 커서 저택부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근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서원조의 큰 특징이라는 점이다.⁴⁰⁾

다이묘의 주거의 예로 宇和島藩江戸中屋敷 평면을 보면 (그림 6)과 같다. 이 집은 明曆大火(1657년)의 후에 고쳐지어진 것인데 매우 큰 규모를 지닌 전형적인 다이묘 주거의 구성과 배치를 보여준다. 이것은 대면과 접객공간(서원과 소서원), 정무를 보는 공간(御座間), 침실(御寢の間), 식사와 요리를 위한 공간(台所,料理室,御用部屋,右筆部屋,坊主部屋 등) 그리고 목욕실(風呂)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¹⁾ 이러한 각각의 공간은 여러개의 채로 나누어지면서 내부적으로는 모두 복도로 연결되어 한몸으로 구성된 것이 특색이다. 또한 실의 명칭과 기능으로 보면 주인의 휴식과 침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의례를 나타내는 공간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는데, 현관에서부터 서원에 이르기까지 기러기 모양으로 배치된 이들 접객공간은 채광이나 통풍, 그리고 전망에 유리하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급무사의 경우에도 방의 배치는 넓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접객을 위한 객실 부분과 일상생활을 위한 부분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⁴²⁾

30石 전후의 하급 무가주택의 표준형을 들어 보면 (그림 7)과 같다. 이 평면에서 나타난 공간은 객실(자시키), 거실(이마), 불단, 침실, 취사장 등이다. 따라서 家族을 위한 私的 공간은 공동의 공간인 거실과 취사장을 제외하고는 침실 하나 뿐임을 알 수 있다. 현관에서 객실에 이르기까지의 공간이 모두 손님을 위한 전용의 공간이다. 현관은 손님을 위한 정식 출입구이며 가족을 위한 출입구는 취사장 옆의 문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외부인을 위한 보이는 공간과 외부에 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공간은 그 설비와 규모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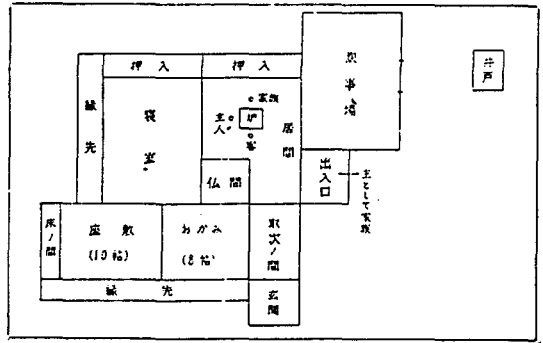


그림 7. 30石전후 무가주택의 표준형 공간구성

〈출처 : 武士生活研究會, 앞책, 46쪽〉

柳美代子⁴³⁾는 전통적 일본주택의 큰 특징의 하나가 접객본위로, 이는 무가계급 뿐만아니라 농민이나 상인주택에서도 마찬가지로였으며 채광이 좋은 최상의 방이 접객이나 관혼상제, 년중행사를 위해 사용되고 가족은 채광이 나쁘고 협소한 방에서 식사, 수면, 단란 등의 일상생활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비경제적인 공간 사용 방식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평면에 나타난 주공간의 절반이상이 가족들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한 가장을 중심으로 한 남자무사들의 사회적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공간이라 해도 가족의 개인적 취침이나 여분의 개인 공간을 이 평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은 가장을 제외한 가족의 개개인의 존재에 대한 위상이 약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공간의 위계형성(上/下)

앞에서 나온 바와같이 다이묘의 주택은 城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쪽으로 부터 上·中·下の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상하의 개념은 주 공간 내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도코노마를 설치하고 가장 좋은 위치에 놓였던 객실이 바로

41) 平井 聖, [圖說 日本住宅の歴史], 京都:學藝出版社, 1980, 54-55쪽

42) 稻葉和也, 中山繁信, [日本人の住まい], 앞책, 74쪽

43) 柳 美代子, [住まいと女-女性からみた日本住居史-], 京都:松香堂, 1983, 29-30쪽

40) 太田博太郎, [日本住宅史の研究], 東京:岩波書店, 1984, 42-46쪽

上的 구심점이 된다고 하겠다.

근세에 있는 무가생활의 가운데 武家同士 또는 公家와의 사교를 위한 접객은 최대의 관심사였고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접객의 작법에는 필히 對面이 수반되었다. 오히려 대면이야말로 접객작법의 주제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대면이란 봉건시대에 있어서 노골적인 주종관계, 신분의 상하를 가리키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였다. 대면을 할 때 신분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은 무엇보다 앉는 위치에 의해서였다. 한단 높은 上座가 상위자가 앉는 것은 물론 아래자리에 앉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분에 의한 차별이 있었다.⁴⁴⁾

따라서 대면의 場이 되는 서원조의 主室의 도코노마를 뒤로 하는 위치에 앉는 사람이 가장 신분이 위이며 그 다음 신분적 순차에 따라 앉는 위치가 표현되게 하였다.⁴⁵⁾

중세의 대면의 장에는 중심이 되는 인물이 정원을 향해 앉도록 되어 정원쪽으로 방을 이어 확대하였는데 근세에는 주인과客的 축이 정원에 평행하여 상·중·하단의 방이 뜰에 면하는 형식으로 되었다. 이러한 일렬형 평면이 대서원·소서원의 일반적 평면으로 되었다.⁴⁶⁾ 따라서 上的 공간에 놓여지는 도코노마의 존재는 이 공간의 격이 가장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 가치를 지니며 무가주택의 사회 문화적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上的 공간에 대한 下의 개념을 지닌 공간의 예로서, 金澤에 남아 있는 永井家를 보면 (그림 8)과 같다. 이 집에 일찌기 살았던 永井童太郎의 家孫은 加賀藩의 아시카루(足輕)였다. 아시카루의 집으로서는 지나치게 좋은데 도코노마와 府書院까지 있는 객실은 지나친 것이었다. 이 집은 아마 메이지에 들어와서 藩에서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자 에도시대의 주거보다 나은 것을 구입하여 이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집은 24평 규모의 것으로 지붕은 판재잇기위에 돌을 얹은 것이다. 외향(表)의 중심은 8疊의 객실이다. 현관과 객실사이에는 스키노마(次の間)가 있는데 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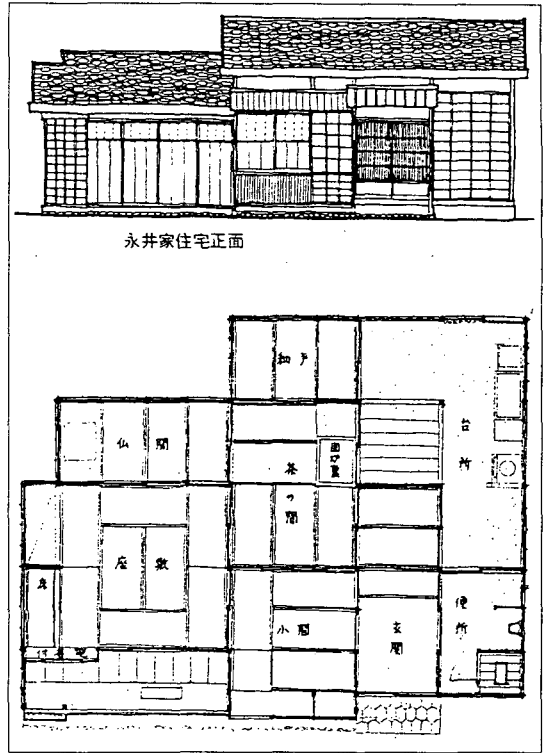


그림 8. 永井家住宅의 正面과 平面圖
 <출처 : 平井 聖, 앞책, 116~117쪽>

에 족자가 걸려있고 불탁이선반등도 있어 茶室과 같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 佛壇공간과 가족들의 침실인 난도(納戸), 거실공간(茶の間), 그리고 부엌과 변소등이 구성되어 있다.⁴⁷⁾ 즉, 上的 객실에 대한 下의 공간이 바로 스키노마이다.

스키노마는 자시키의 격식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하여 家臣을 알현하거나 경호를 맡게 한 다거나 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즉 자시키는 스키노마에 의해 主從간에 있는 복종성, 신뢰성을 성립시킨 正室의 공간이다.⁴⁸⁾

44) 平井聖, [日本の近世住宅], 鹿島研究所出版會, 1968, 152쪽

45) 玉井哲雄, “近世における住居と社會”, [日本の社會史]第8卷, 岩波書店, 1987, 104쪽
 46) 柳 美代子, [住まいと女-女性からみた日本住居史-], 京都: 松香堂, 1983, 78쪽
 47) 平井 聖, [住生活史 - 日本人の住まいと生活], 106-107쪽
 48) 加倉井昭夫, [日本の室内の空間], 主婦と生活史, 1975, 41쪽

上田 篤 등⁴⁹⁾은 일본주거의 間양식의 특징이 하나의 間이 독자적인 캐릭터를 지니지 않고 역할이 딸린 間(上段の間, 上座敷 등)과 脇役을 하는 間(次の間, 中の間, 二の間 등)이 連擔해서 새로운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공간에서 상하의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大河直躬은 에도 중기 이후가 되면 상/하의 방위가 우월화하며 시대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거 내의 방위는 꽤 복잡해 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오모테(票)/우라(裏)의 방위보다도 시모(下)에 있는 토방이나 현관을 출발점으로 해서 가미(上)로 향하는 경로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또 그 경로가 꺾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간배치는 모모야마(挑山)시대 이래의 다이묘 주택들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를 井上充夫는 ‘행동적 공간’이라 부르고 ‘位相幾何學的’ 성질을 지닌다고 하였다.⁵⁰⁾

결국 무사들의 수직적인 인간관계의 표현 의례이자 사회적 규범이었던 대면은 주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요인으로 작용되어 공간의 위계적 배치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3) 길/안의 대비적 개념공간

무가주택에 나타난 공간의 배치는 성격이 다른 두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제1의 영역은 겘(오모테:表)의 영역으로 남측의 정원에 면해서 열린 영역이다. 제2의 영역은 안쪽(우라:裏)에 있는 영역이다. 이같이 오모테/우라로 주거를 양분하는 공간구성은 하례(晴:공적인 영역)/케(藝:일상의 영역)의 구분에 대응하는 중세적인 영역구분법이다. 表=晴의 영역은 신분이 높은 촌의 응대나 특별한 행사를 하는 장으로서 사용되고 裏=藝의 영역은 일상의 주거의 장으로서 사용되었다. 한 채안에 두가지 계열의 공간분절이 있었던 것이다.⁵¹⁾ 이러한 공간구조의 배경은 역시 앞에서 나타난 대면과 무사간의 수직적 질서의 표현과 깊은 관련이 있겠다.

즉, 에도시대의 무사는 戰國시대의 무사와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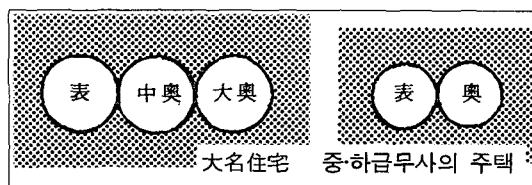


그림 9. 무가주택의 공간영역

리 계급제가 이루어지고 상하의 신분제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가문에 따라 결정된 세습제이었다. 일상생활의 형식에도 의례를 존중하고 상하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흉내내지 않도록 하였다. 주택의 형식에도 이것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하여 의례의 표현으로 表(表)의 부분, 즉 문 현관 객실 등은 침실이나 부엌과 같은 일상생활의 공간과는 별도로 고려하였다. 겘의 공공연한 부분은 살기위한 곳이라기 보다는 신분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유함과 관계없이 신분에 맞게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집의 안쪽부분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허술하게 처리하였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에 맞겨 두었다.⁵²⁾

쇼오군이나 다이묘의 주택도 예외 없이 表, 中奥, 大奥의 세부분으로 구별되었다. 表는 매일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場이며 中奥는 평소거주하는 영역, 大奥는 부인과 侍女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다.(그림 9)

한편 안(奥,裏)으로서의 대표적 공간인 난도(納戸)는 대개 창문이 없고 벽으로만 둘러 싸여 개구부로는 출입문 하나만 있는, 구조적으로 보아 아주 폐쇄적인 공간으로 家財나 곡물의 수납, 취침이 주된 기능이다. 실내에는 장식적인 배려가 없으며 이 난도에 대한 강한 관념은 ‘자식을 만드는 곳’이라는 습속이다. 신혼부부가 보내는 침방은 난도라는 가장 안쪽의 방이 선택된다. 또한 이 공간은 일본인들의 生과 死의 습속과 관련이

50) 大河直躬, [住まいの人類學], 平凡社, 1986, 140-141쪽

51) 上田 篤외, 앞책, 260쪽

52) 度邊保忠, 加藤角一, [建築講座5 歴史], 東京: 彰國社, 1982, 186쪽

49) 上田 篤외, [空間の原形-住まいにおける聖の比較文化], 筑摩書房, 1983, 256쪽

깊으며 波照間島나 富山懸의 五箇山地方 등에서는 출산의 장소로도 이용된다. 이와같이 난도는 사람의 生과死, 혼인의 때에 안(우라)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일상적인 목적성보다는 상징성이 현저히 높다.⁵³⁾ 이러한 면에서는 난도가 우리나라의 안방이 지닌 속성과 공통점이 있으나 가족 모두가 난도에서 함께 취침을 하며 내부적 생활이 매우 은밀하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수면을 함께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족 개개인의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생활방식이다.

이상과 같이 가족들의 수면이나 식사, 취사를 위한 일상적 생활공간은 ‘안’으로의 숨겨진 영역으로 되고, 접객과 의례를 위한 사회적 공간은 그 집의 상징인 ‘겉’이 되어 주거공간의 대표적 영역으로 자리 매김되었다. 이러한 공간적 성격은 무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家의 일원으로써 격식적 규범에 충실히 따른데서 나온 결과로 보여진다.

5. 맺는말

에도시대의 무가주택은 배치나 규모 그리고 설비면에서 가장이 되는 무사의 신분별로 상당히 명확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았다. 무가주택의 배치는 구심점이 되는 城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계급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가깝게 할당되었다. 또한 주택의 설비 중 문은 무가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직접적 표식이었다.

間과 間으로 구성된 주공간의 평면은 다이어모에서 하급무사에 이르기까지 서원조가 정형화되어 객실의 도쿄노마가 주공간의 구심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지표가 되었다.

주공간의 구성과 함께 사용에서 나타난 무가공간의 구조적 특질은 접객 및 의례/일상생활, 上/下, 겉(表)/안(奧,裏)의 이중적 영역의 혼재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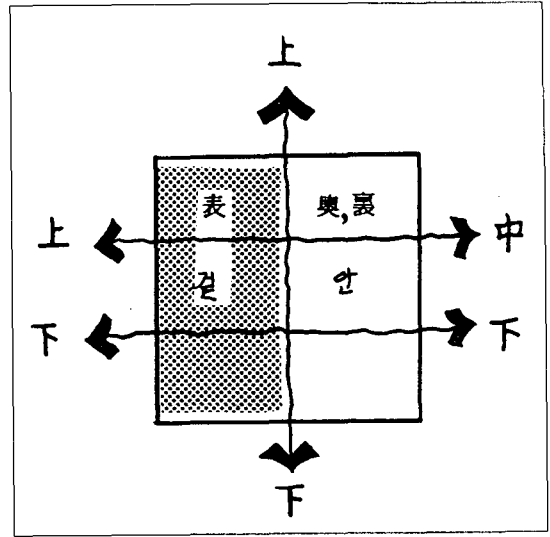


그림 10. 에도시대 무가주택의 공간구조

되어 있다는 점이다.(그림 10) 이러한 공간의 이중 영역이나 위계적 표시가 한국의 조선조 주택에도 물론 내재되어 있지만 물리성과 인지적 측면에서 양국간에 차이를 보인다. 즉, 한국은 채의 분화로 인한 물리적, 시각적 공간거리가 더 발달한 반면에, 일본은 한 채안에 형성된 간의 분화에서 오히려 그 이중성이 더 명확히 지켜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거리보다 인지적 공간거리가 더 발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물론 武의 사회에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던 수직적 인간관계가 生과 死가 얽힌 실제적인 삶의 고리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 그 하부적 측면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쇼오군 등의 상층의 집권층은 강력한 동심원적 세력의 확보와 계층별 인지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현적 규제로서의 제도의 반입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에 의한 규범적 의례로 나온 것이 바로 ‘對面’이었다.

독테이터(Doxtater)는 ‘전통적 사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상징문화의 유지와 인식에 의해 모든 측면이 거의 고도적 체계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감정적으로 일련의 고도화된 상징성을 통합한 사회정치적인 조작이 있다고 지적⁵⁴⁾한 바 있다.

53) 大河直躬, [住まいの人類學], 平凡社, 1986, 148-149쪽

54) DENNIS DOXTATER, “주거의 변화에 대한 연

일본의 에도시대에 나타난 무가주택의 신분별 배치나 공간 구성은 바로 독테이터의 지적의 예에 대표적이리만큼 사회 정치적 배경에 의한 조작성 의도가 뚜렷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지배계층으로서의 무가의 공간적 구성이 일반 민가에는 어떠한 특질로 연관되어 나타났는지를 보는 것은 다음 과제라고 하겠다.

구개념으로서의 문화공간:안달루시아의 백색공간을 중심으로",SETHA ML.외 편저,주거문화연구회역,[주거,문화,디자인],신광출판사,1994,125-143

DISTINCTION OF SPACE USE AND ORGANIZATION OF TRADITIONAL HOUSES IN KOREA AND JAPAN(1)

-SPATIAL CHARACTERISTICS OF WARRIOR HOUSES IN EDO PERIOD-

Park, Sun Hee

(Chun Buk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warrior houses in Edo period were as follows:

(1)The disposition, size, and facilities of warrior houses was to be settled strictly according to the social position.

(2)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warrior houses has conceptual organization of dual structure, such as entertainment/daily life, high/low, outside/inside.